

- 주요 뉴스: EU, 추계 경제전망 발표 및 '22.4분기 유로존 경기침체 진입 예상
 -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, 4개월래 최저.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
 - 중국, 코로나19 격리기간 단축, 항공기 운항 제한 완화 등 코로나19 규제 완화
 - 영국 '22.3분기 GDP, 전분기 대비 0.2% 역성장하면서 경기침체 우려 확대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전일 미국 10월 CPI 둔화로 인한 위험선호심리가 지속
 주가 상승[+0.9%], 달러화 약세[-1.7%], 독일 금리 상승[+15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전일 미국 10월 CPI 발표 영향으로 상승
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CPI, 중국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인플레 정점 통과 및 연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약세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4%, 1.5% 상승
 - 금리: 미국 채권시장은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
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유로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큰 폭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3.95원, -4.0원) 0.3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1/11일	11/10일	전일대비			11/11일	11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92.9	3,956.4	0.92%	국채 금리 10y	미국	-	3.81%	-
	유럽	432.26	431.89	0.09%		독일	2.16%	2.01%	15bp
	중국	3,087.3	3,036.1	1.69%		영국	3.36%	3.29%	7bp
	일본	28,264	27,446	2.98%	CDS 5y	한국	56bp	58bp	-3bp
	한국	2,483.2	2,402.2	3.37%		중국	79bp	97bp	-18bp
환율	달러지수	106.42	108.21	-1.65%	위험 지표	EMBI+	-	425	-
	유로화	1.0347	1.0209	1.35%		VIX	22.52	23.53	-4.29%
	엔화	138.81	140.98	1.54%		WTI유	88.96	86.47	2.88%
	위안화	7.0973	7.1865	1.24%	원자재	구리	391.4	375.8	4.14%
	원화	1,318.4	1,377.5	4.48%		금	1,771.2	1,755.5	0.9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U, 추계 경제전망 발표 및 '22.4분기 유로존 경기침체 진입 예상

-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'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치인 2.6%에서 3.2%로 상향조정한 반면, '23년 전망치는 1.4%에서 0.3%로 하향. 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은 '22년이 7.6%에서 8.5%로, '23년이 4.0%에서 6.1%로 상향
- 또한 유로존 및 대부분의 회원국이 '22.4분기부터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. 불확실성 확대,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, 가계 구매력 저하, 취약한 대외 환경, 긴축 재정 등이 주요 배경이며, 침체는 '23.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'23년 회원국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독일 -0.6%, 프랑스 0.4%, 이탈리아 0.3%, 스페인 1.0% 등. 독일의 경우 역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러·우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
- 파올로 겐틸로니 EU 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연말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을 제시. 다만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거의 없고 LNG 수입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해 '23년 및 '24년 겨울을 앞두고 비축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, 4개월래 최저.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

-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54.7을 기록하면서 전월(59.9) 및 예상치(59.5)를 큰 폭 하회하고 4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.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11월 소비자기대지수도 전월 56.2에서 52.7로 하락
-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10월 5.0%에서 5.1%로 소폭 상승했으며, 5-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.9%에서 3.0%로 상승하면서 5개월래 최고. 미시건대는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분기 내 경기침체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

■ 중국, 코로나19 격리기간 단축, 항공기 운항 제한 완화 등 코로나19 규제 완화

-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밀접접촉자와 입국자의 코로나19 격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인바운드 항공기 서킷 브레이커를 폐지. 위험지역 분류도 종전 고·중저 3단계에서 고·저 2단계로 조정하고 2차 밀접접촉자 파악도 중단할 방침

■ 미국 옐런 재무장관, CPI 발표 이후 지나친 낙관론에 주의할 필요

- 옐런 재무장관은 전일 발표된 10월 CPI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하나의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. CPI 구성항목의 1/3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'23년에도 인플레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
- ECB 권도스 부총재도 미국 CPI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가하며 과민반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

■ 영국 '22.3분기 GDP, 전분기 대비 0.2% 역성장하면서 경기침체 우려 확대

- 영국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.2%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(-0.5%)를 상회했으나, GDP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'19.4분기보다 작은 수준을 기록. G7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기침체 진입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
- 헌트 재무장관은 GDP 발표 후 신뢰와 경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극도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고 표명. 11/17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플레 억제, 균형 재정, 국가부채 축소를 강조

■ 스페인 중앙은행 데 코스 총재, ECB의 12월 양적긴축 발표 가능성 시사

- 데 코스 총재는 ECB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B/S 축소 시작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발언. ECB는 팬데믹 위기 중 매입한 5조유로 채권 등을 포함해 B/S 축소 시작을 원하고 있으며, 양적긴축을 위한 주요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 부연

■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18개월에서 24개월간 이어질 소지

-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상회 지속으로 인플레 억제 노력이 18개월에서 2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. 수개월간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으나 겨울 중 인플레 정점 통과 기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: 54.7, 10월(59.9), 예상치(59.5)
- 미국 11월 미시건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: 5.1%, 10월(5.0%), 예상치(5.1%)
- 미국 11월 미시건대 5-10년 기대인플레이션: 3.0%, 10월(2.9%), 예상치(2.9%)
- 영국 '22.3분기 경제성장률(전분기대비): -0.2%, 2분기(0.2%), 예상치(-0.5%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